

# “송도를 세계적 쇼핑명소 만들것”

## 터브먼아시아 모건 파커 사장… 내달 쇼핑몰 착공

“내달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쇼핑몰 개발 및 운영 전문 기업인 터브먼센터(TCO)의 자회사인 터브먼아시아 사장 모건 파커(54)씨가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는 도착 직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터뷰를 통해 “구매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들이 북미나 유럽 지역에 가지 않고도 송도에서 똑같은 수준의 쇼핑이 가능한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주 출신인 파커 사장은 터브먼 그룹에 영입되기 전에는 모건 스텐리 부사장으로 도쿄에 상주하면서 일본과 홍콩, 중국의 소매시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또 모건 스텐리에 합류하기 전에는 호주의 대형 투자 은행인 매쿼리 은행에서 중역으로 일했다.

그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면서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이끌었다”며 “인천 송도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인들의 쇼핑 천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터브먼이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개발하는 쇼핑몰은 전용면적 10만5000㎡ 규모(부지 2만300㎡)로, 2010년까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멀티 플렉스 영화관, 150여개의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입점하게 된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와 1200석의 푸드 코트도 들어선다.



터브먼아시아 모건 파커 사장이 19일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쇼핑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

파커 사장은 “터브먼은 이미 미국 쇼핑몰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만큼 송도 쇼핑몰은 한국 쇼핑문화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터브먼은 미국에서도 면적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시 큰 투자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gyo@kmib.co.kr